사진 1

사진 2

사진 3

촛대[燭臺] – 은입사(銀入絲) 촛대

철이나 놋쇠 제품에 은실을 이용하여 문양을 넣는 세공 기법을 은입사(銀入絲)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사용된 금속사(金屬絲)의 재료에 따라 은입사, 금입사, 동입사라고 부른다. 한층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장식으로, 촛대나 등잔대뿐만 아니라 화로나 자물쇠, 담배합, 문방구 등 여러 가지 생활용품에도 활용되었다. 전통 수공기법으로서 입사(入絲)란 금속기물의 표면을 작은 정으로 쪼아 다른 금속을 끼워 넣거나 덧씌워 무늬를 놓는 것이다. 입사는 쪼이기법[彫伊技法]이라는 점에서 홈에다 금속선을 감입(嵌入)하여 선묘(線描)로 나타내는 방법과 덧입혀서 자개 놓듯 하는 첩금법(貼金法) 등이 두루 혼용되었다. 그러나 이 두 방법은 재료의 이용과 공정 면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

사찰의 향완이나 향로, 정병 등 고려시대 청동 불구류(佛具類)에서 볼 수 있는 상감기법(象嵌技法)은 조선시대의 입사기법과 약간의 차이가 있다. 바탕이나 재료뿐만 아니라 공정 면에서도 구분이 되는데, 표면에 각종 무늬를 파서 그 속에 금은(金銀) 등을 넣어 채우는 기술이 상감이라면, 입사는 홈에다 금속선을 감입하거나 바탕에 덧 입혀서 금속 면을 처리하는 기법이다. 따라서 조선시대 입사는 주로 철제 용기의 문양을 강조하여 표현할 때 사용하였으며,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 우리나라에서 크게 발달한 기법이다. 입사의 도구로 예리한 끌을 사용하여 그릇 표면에 나타내고자 하는 문양으로 홈을 내고, 은실을 얇게 꼬거나 넓게 펴서 문양에 대고 두들기는 기법으로 완성되는데, 섬세한 끌질이 필수 요건으로서 매우 숙련된 기술이 필요하다.

조선시대 경공장(京工匠)으로서 금은세공 장인에는 별도로 입사장을 두었는데, 《경국대전》에는 정3품 이하 당하관(堂下官)의 신분으로 말안장에다 은입사 하는 것을 금한다는 기록이 있어, 계급과 신분에 따라

사진 4

사진 5

입사 재료를 제한하였음을 알 수 있다. 때문에 일반 백성들은 은입사의 기물을 사용하지 못하고 신분이 높은 일부 상류층에서만 쓸 수 있었던 의장(意匠)이었음을 알 수 있다.

사진자료는 철제은입사촛대들이다. 일상용 촛대와 의 · 제식용(儀 · 祭式用) 촛대 모두 은입사 기법을 활용하였다. 사진 1~3은 일상용 촛대로서, 촛대의 뒤쪽 불후리[火扇]에 모두 '희(囍)' 자 문을 새겨 넣었다. 밑받침은 각각 육각, 팔각, 원형의 형태로, 위쪽 불후리 역시 밑받침의 형태와 통일시킴으로써 전체적으로 조화와 균형을 꾀하였다. 불후리에서 촛대의 이음새 부분에는 '희(囍)' 자나 '만(卍)' 자와 같은 길상의 문양을 새겨 넣어 한층 아름다운 자태를 나타내거나, 아니면 사진 3의 경우처럼 문양을 새기지 않고 이음새 부분에 초심지 가위를 걸어두고서 필요에 따라 기능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촛대 기둥에 부착되어 있는 불후리는 회전할 수 있도록 장치하여 바람막이나 반사 등 필요에 따라 그 역할을 바꿀 수 있도록 하였고, 전체적으로 분해와 조립이 가능하다.

사진 4, 5는 각각 한 쌍의 의 · 제식용 촛대이다. 사진 4는 여러 가지 문양이 뒤섞여 복잡한 느낌이 들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일정한 규칙에 따라 문양을 배열하고, 특히 아래 위 받침의 가장자리와 기둥 이음매 부분에 우뢰문양[雷紋]으로 통일하여 한층 균형미가 있다. 원반형의 둥근 밑받침에 죽절형 기둥을 세우고 초 받침을 얹은 다음 그 위에 원통형 초꽂이를 두었다. 촛대의 밑받침에서부터 기둥(竿柱)을 거쳐 위의 초꽂이에 이르기까지 꽃무늬와 문자, 뇌문(雷紋)을 조화롭게 처리하여 전체적으로 고급스러움을 한층 더해주고 있다. 사진 5 또한 복발(覆鉢)형 촛대의 밑받침에서부터 기둥[竿柱]을 거쳐 초꽂이에 이르기까지 은입사의 다양한 문양이 우아하면서도 화려한 아름다움을 주는데, 조선왕실을 상징하는 오얏나무 잎과 오얏꽃[李花]이 새겨진 것으로 보아 왕실이나 왕실의 종친(宗親)가에서 사용한 듯하다. KEA

사진 및 자료 / 국립민속박물관, 서울대학교박물관, 한국등잔박물관
글 / **민병근**(전기박물관 학예연구사)

사진1 철제은입사촛대[鐵製銀入絲燭臺]// 조선시대// 높이 87cm, 받침지름 22.9cm// 국립민속박물관
사진2 철제은입사촛대[鐵製銀入絲燭臺]// 조선시대// 높이 69.5cm, 받침지름 22.5cm// 한국등잔박물관
사진3 철제은입사촛대[鐵製銀入絲燭臺]// 조선시대// 높이 76cm, 밑지름 21.5cm// 서울대학교박물관
사진4 철제은입사쌍촛대[鐵製銀入絲雙燭臺]// 조선시대// 높이 20cm, 밑지름 13.5cm// 국립민속박물관
사진5 철제은입사쌍촛대[鐵製銀入絲雙燭臺]// 조선시대// 높이 45.5~46cm, 밑지름 15cm// 국립민속박물관